

## 상감청자에 보이는 고려인의 자연관

강경남, 303호 청자실 18:00~18:30

전라북도 부안 유천리 가마에서는 전라남도 강진 사당리 가마와 함께 고려 왕실과 중앙 관청용 고급 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유천리에서 본격적으로 요업이 시작됐던 12세기는 고려청자 제작이 절정기를 달했던 때입니다. 비취색 유약에 다양한 무늬와 기법의 도자기를 제작했던 유천리 12호 가마터 출토품 중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은 도자기 표면에 날카로운 도구로 무늬를 파낸 후 그 안에 흰 흙과 붉은 흙을 감입하는 것으로, 무늬의 흑백대비를 통해 장식 효과가 뛰어난 기법입니다.



그림1. 청자 상감 매화 대나무 학 무늬 매병, 보물

이 매병 역시 부안 유천리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고려 매병의 모습입니다. 매병 앞뒷면에 상감기법으로 표현된 문양이 선명하고 정교합니다. 몸체 양면에 대나무와 매화나무를 배치하고 그 사이에 학들을 표현했는데 문양이 회화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뛰어난 작품입니다. 유색은 고려청자의 맑은 하늘색이며 전체적으로 빙결이 고르게 분포되었습니다. 굽 부분의 유약 색이 다른 것은 가마 안에서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유천리 가마에서 만든 상감청자에는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학, 물가풍경을 배경으로 새가 노니는 장면, 파초 앞에서 쉬는 두꺼비 등을 표현하여 서정적인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완성된 청자의 모습이 아니라 폐기된 파편이어서 무늬의 일부만 남아 있지만

붓으로 섬세하게 터치하듯 상감된 무늬의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면서 회화적이어서 유천리 장인의 상감 기법에 대한 이해와 솜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을 사랑하고 동경했던 고려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7)

어람御覽의 품격 - 어람용 의궤와 분상용 의궤

임혜경, 121호 특별전시실 18:00~18:30

의궤儀軌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끝난 후 그 전 과정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은 기록물입니다. 적게는 3부에서 많게는 9부를 만들었는데, 그 중 1부는 왕이 읽어보도록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업무를 맡은 관청이나 실록實錄 같은 국가 기록물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로 보냈습니다. 왕에게 올린 것을 어람용,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한 것은 분상용이라고 합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몇 권을 제외한 대부분이 왕을 위해 만든 어람용입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입니다.

어람용 의궤는 초록색의 고급 비단으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흰 비단을 마련해서 제목은 쓴 후 표지에 붙였습니다. 표지와 내지는 겹쳐서 구멍을 뚫은 후 겹에 반짝이는 낫쇠 판을 대고 못을 박아 고정하였습니다. 낫쇠 판은 변철이라고 하고, 못은 박철이라고 합니다. 박철은 다시 국화 꽃잎 모양의 장식을 덧대어 꾸몄습니다. 변철 중앙에는 둥근 고리인 원환도 달았습니다. 일반적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마감입니다.

분상용 의궤는 행사 진행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여러 관청에 나누어 준 책입니다. 중요한 국가 행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종이로 만들어 실로 묶는 보통의 책보다 격을 높였지만, 어람용 의궤에 비하면 장식이 생략되어 검소하고 실용적인 모습입니다. 표지는 붉은 색으로 물들인 삼베로 만들었고요, 제목은 표지에 먹으로 썼습니다. 변철과 박철로 엮은 것은 동일하지만 낫쇠가 아니라 그냥 쇠로 만들어서 투박한 모습입니다. 국화동 장식도 없습니다.



그림1.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어람용



그림2. 『장렬왕후존숭도감의궤』  
분상용

## 어린이박물관 교육상자

고지훈, 어린이박물관 입구 하하배움터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에서는 매년 ‘교육상자’라는 어린이 체험교구를 제작합니다. 교육상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또 전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백제금동대향로, 2020년 조선시대 평생도, 2021년에는 도자기를 주제로 하고 2022 올해는 익산 미륵사지를 주제로 교육상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큐대에서 소개할 교육상자는 ‘평생도’입니다. 조선후기 유물인 평생도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념이 될 만한 경사스러운 일들을 골라 그린 풍속 화입니다. 대개 여덟 폭의 병풍으로 만들었는데 돌잔치, 혼례, 삼일유가, 첫 벼슬길, 관찰사 부임, 판서 행차, 정승 부임, 회혼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사대부)가 일생 동안 겪을 수 있는 평생의례, 관직생활을 표현한 그림으로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제작된 평생도 교육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평생도(平生圖)’를 어린이들이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근하여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평생도 교육상자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상자마다 평생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연출되어 있습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하시면 어린이박물관 평생도 교육상자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림1. 평생도 교육상자 구성



## 가야 판갑옷

박진일, 107호 가야실 18:00~18:30

가야의 철제 갑옷은 수 백 장의 조그만 철판을 가죽 끈으로 엮어서 만든 비늘갑옷[札甲]과 큰 철판 20~30매를 이어서 만든 판갑옷[板甲]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늘갑옷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북방 기마 전사들이 주로 입던 것입니다. 이런 북방계 비늘갑옷의 영향으로 신라와 가야 지방에서도 기원 후 4세기 대에 처음으로 철로 만든 갑옷이 등장하는데 북방계의 비늘갑옷뿐만 아니라 판갑옷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갑옷도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가야에서 많이 확인되는 판갑옷은 가야무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비늘갑옷은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로운데 비해 판갑옷은 큰 철판들을 대개 못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합니다. 이 때문에 판갑옷은 기병騎兵이 아닌 보병步兵이 주로 착용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확인되는 판갑옷은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엮어 만든 종장판갑옷[縱長板甲]입니다. 판갑옷의 초기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긴 철판을 가죽으로 묶어 연결한 것입니다. 목가리개도 함께 출토되었는데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갑옷은 긴 철판이나 삼각형의 철판을 가로로 고정하여 만들게 됩니다. 긴 철판을 가로방향으로 못을 이용해 이어 붙여 만든 판갑옷, 즉 횡장판갑옷[橫長板甲]이 출토된 대표적인 무덤이 대가야의 왕릉인 고령 지산동 32호 무덤입니다.

한편 철판을 삼각형으로 자른 후 못과 가죽끈을 이용해서 고정한 함안 도항리 13호 출토품과 같은 삼각판갑옷[三角板甲]은 가야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철제 갑옷은 대부분 무덤에서 녹이 쓴 상태로 출토됩니다. 그런데 철녹은 화학적으로 인정되어 있어 원래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토 상태와 달리 제작 당시의 갑옷은 눈부신 은색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표면에 옷칠을 하면 광택이 나는 붉은 색이나 검은 색을 띠기도 했을 것이며, 새의 깃털이나 동물의 가죽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림1. 고령 지산동 32호 판갑옷